

大統領에게 말씀드립니다!

國事에 염려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요즘의 時局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犯罪와 社會非理가 기승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世上事 모든 日常의 형태가 犯罪와 非理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犯罪도 예사 犯罪가 아닙니다. 물건을 훔치는 정도는 犯罪측에도 못듭니다. 強盜도 때強盜에, 殺人도 그 수법이 잔인하기 이룰데 없으며 특하면 集團殺人입니다. 그리고 부녀자 납치도 감언이설의 유괴가 아니라 대낮에 골목 어귀에 봉고차를 세워 놓고, 登下校 길의 여학생과 장보러 가는 有夫女를 짐작 신듯 강제로 차에 끌고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非理의 경우도 次元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高級化 되었다고 할까요?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非理의 대명사로 불려 왔던 부동산투기의 경우도, 옛날 같이 집 몇 채 요령껏 사고, 팔아 差額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國土開發計劃을 미리 알고 있는 공무원과 짜고, 開發豫定地의 마을과 산 몇개를 통채로 사들이는 국토투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심한 세상이 되다보니, 돈과 영킨 社會非理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每事に 非理가 들어가지 않고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 너도나도 非理를 좇아 허둥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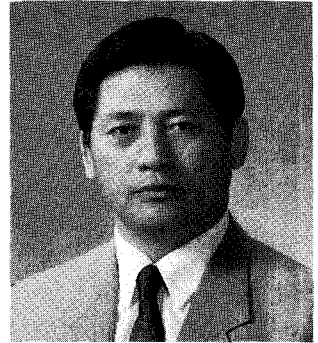
사회가 이 모양이다 보니, 심지어는 장래를 가늠하는 대학입시도 適性和 素質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붙고 보자는 투기심리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로 매달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天賦的인 재능으로 人生을 거는 藝術에 까지 돈이 오가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心性이 사나워질대로 사나워져, 每事に 급하고 허기져, 道德이라는 것은 이미 失蹤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道德은 커녕 사람이 모여사는 社會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상식적인 秩序마저 없어, 돈과 權力 그리고 힘(주먹)이면 그만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병들게 된 까닭엔 여러 雜多한 이유가 있겠지만, 根本的인 원인은 自然이 파괴되고 環境이 汚染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사람은 自然에서 태어나, 自然의 수혜로 살게되어 있는데 그 自然이 파괴되었으니, 사람의 心性인들 파괴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環境이 매연으로, 폐수로 그리고 쓰레기로 汚染되었는데 사람의 心性도 매연 같이, 폐수 같이 아니 쓰레기 같이 汚染 안될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心性이 파괴되고 오염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社會는 당연히 파괴되고, 병들게 마련이며, 그 병든 社會는 國家의 安慰마저 위태롭게 함은 당연한 理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治山治水 즉 自然과 環境保護를 나라 다스리기의 根本으로 알아 그를 위해



〈본 연합회 회장〉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우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나라 다스리기는 治山治水는 커녕, 그 반대되는 일에 정성과 힘을 기우리고 있는 듯이 보이니, 犯罪와 非理가 판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니 治山治水는 커녕, 숨쉬는 空氣와 마셔야 할 물이 병들대로 병들어 사람들이 不安해 하던 터에, 洛東江 페놀汚染이라는 國家準非常事態가 터졌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根本的인 對策 보다는 事後藥房文式의 수습만 하다가, 한 달만에 똑같은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그 主務長官과 次官의 목을 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양,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분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은 답답한 일입니다.

長官의 목을 쳐서, 汚染이 회복된다면 國民의 生存을 위해 백 번, 천 번 長官의 목을 쳐도 잘 하는 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長官의 목을 쳤다고해서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 自然과 環境問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치실려면 제대로 쳤어야 했다는 여론입니다.

적어도 이번의 洛東江 페놀사건의 경우에는 環境處長官이 아니라, 環境豫算에 인색했던(물론, 그럴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經濟企劃 院長官과 下水處理場 보다는 그린벨트 벗기기에 열심이었던 建設部長官 그리고 生産과 輸出에만 열을 올렸던 商工部長官의 목을 쳐야 옳았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內閣이 全部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輿論이 일어나기 直前, 데모하는 학생을 때려 죽이는 極端의 非理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洛東江 페놀사건은 물과 같이 흐지부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없었던 일로 강물에 띄어 보내려고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끝까지 고쳐야 합니다. 6공화국 최대의 非常事態라고 일컬어지는 이번의 故강경대學生 사건은 여섯명의 焚身을 불러 왔지만, 汚染은 수백, 수 천, 아니 수 만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時局을 수습할 수 있는 最善의 길은 自然과 環境을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心性이 平安해 지고, 社會가 安定을 찾게 됩니다.

그 일에 大統領께서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1991년 5월 20일

李龍雲 拜